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손학규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 손 대표의 진정성과 집권 의지, 그리고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후 충전에 참가하면서 지역선거, 재보선 등 당시 요구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구원부수 역할을 했다. 대표 선출은 당원들에게 이런 진정성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대선 때 끊어버렸던 600만표를 되찾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집권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호남 기반의 민주당이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학습효과가 작동된 것이 선거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로 손 대표는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대권 고지에 먼저 한발 더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손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집권 의지가 강하다고 승리가 달보이지는 않는다.

손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 핸디캡을 딛

고 대권 가도를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서 첫째,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당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당이 순수집단지도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내 주요 실세 인사들이 모두 지도부에 입성했다. 따라서 자칫 ‘비주류의 전략적 대표 흘기’로 당 운영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손학규 대표가 넘어야 할 난제들

그런 의미에서 손 대표의 안정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손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선언했듯이 당분간 계파 화합을 통해 당을 추수해야 한다. 신주류를 만들어 구주류를 몰아내고 비주류와 대립하는 위험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둘째, 생산적인 진보 담론을 주도해야 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담대한 진보’, ‘정의로운 복지 국가’, ‘보편적 복지’ 등 각종 진보 담론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

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기존의 ‘중도 개혁’

노선을 삭제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념적 진보보다는 생활정치와 실천적 진보를 강조하면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이런 손학규식 진보 해석은 그를 고립무원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손 대표가 진보 진영이 적극 반대하는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지 관건이다. 손 대표는 과거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한미 FTA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만약 손 대표가 그때 입장을 바꿔 FTA를 반대하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승리를 위해서는 강원(이광재)-충청(안희정)-영남(김두관)으로 연결되는 짧은 친노벨트를 우군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넷째,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을 하나로 묶는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진보세력의 경우,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때만이 승리하는 방정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손대표는 당 대표 자리를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범진보 진영을 묶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연합을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손 대표는 “그 어떤 기득권도 저를 위해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제시된 과제 하나하나가 실천하기에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손 대표가 3당 합당으로 민자당에 들어가 대권을 거머쥔 김영삼이 될 것인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들어가 이용만 당하고 평당한 이인제가 될 것인가의 여부는 지금부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 길게 호흡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큰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경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김공식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

의사 입장에서 보면 ‘독감’이 아닐까 싶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는 것을 보는 것만큼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다. 게다가 올해도 신종플루가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고 하니 아이의 ‘콜록’한 번도 가벼이 넘길 수 없을 것이다.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특히 폐렴은 초기증상이 고열, 오한, 기침 등 독감의 증상과 비슷

WHO는 폐렴구균성 질환을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은 비롯한 세계 100여 개국에서 폐렴구균 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기준의 폐렴구균 백신이 혈청 형이 추가된 폐렴구균 백신 두 가지가 출시되면서 백신 접종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필수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큰 만큼, 효과적인 폐렴구균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예방법, 규모의 종류, 인전성 3가

기 고

심남식



전남도가 주관하는 관광의 날 기념식이 6일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객들의 언어불편을 없애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의 입구에 사용 가능한 언어를 표시하는 ‘언어표지(言語標識)’ 선포식과 함께 G20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도 마련된다. 아크릴로 제작된 언어표지는 상점의 입구 또는 카운터에 부착되는 언어 안내 표지로 종업원이 구사 가능한 외국어와 외국어 관광안내 전화번호부이다.

지난해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은 31위, 관광수입 30위(2008년), 외국인 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자체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관광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자와 도민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벤트 기획, 관광상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에 대한 도민의 환대서비스가 걱정이 된다. 환율상승 등 경제사정 악화로 다른 어느 때 보다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은 역지사지(易地思之)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시 실

학생 교통카드 도난·갈취의 표적이라니

최근 광주시내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대중교통 결제카드인 ‘마이비’를 훔치거나 갈취하는 사건 등이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카드는 시내버스 요금은 물론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편의점 등지에서 음식이나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생 26만8491명 가운데 70~80% 가량이 ‘마이비’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이비 카드는 선불형 교통 요금카드로 편의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광주시내 편의점은 미니스톱 142곳, 편미리마트 140곳, 세븐일레븐 175곳 등 모두 528곳에 세팅된다.

이같이 교통카드가 학생들의 구미를 당기는 ‘만능카드’가 되자 보니 도난과 갈취, 과소비 등을 부추기고 있다. 광주 모 중학교의 경우 한 학급 학생 35명 가운데 20명이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부작용 큰 ‘총장축제’ 진행 방식 개선돼야

광주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인 ‘추억의 7080 총장축제’의 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동구청이 구도심 활성화를 명분으로 매년 이맘때쯤 개최하는 총장축제가 지난해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 가중과 주변 상권 위축 등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제7회 총장축제가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는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예술공연과 골목길 문화제, ‘총장 DJ 댄스 페스티벌’ 등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하지만, 축제 이를 전인 지난 3일부터 전일빌딩~금남공원 앞 구간의 양방향 교통이 오는 11일 새벽 5시까지 무려 8일간이나 전면통제된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이 출·퇴근 시간은 물론 하루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일주일이 넘게, 그것도 축제 이를 전부터 교통을 전

면통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더 큰 문제는 주변 상권의 위축이다. 음식점과 편의점은 물론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상가와 금남지하상가는 축제기간 동안 매출이 오르기에는커녕 평소보다 30~40%나 떨어져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금남로 빌딩 입주업체들도 교통통제와 소음 등으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 곳곳에 포장 마차 등 수많은 이동 판매점이 자리 잡아 고객행위를 일삼는 등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 오죽하면 충장축제는 ‘전국 포장마차를 위한 축제’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런 식의 총장축제 진행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막대한 헐세를 쓸아부으면서 되레 지역상권을 위축시키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축제라면 자리리 없으니 만 못하다. 총장축제가 주민 화합과 구도심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행사를 전개나기를 촉구한다.

無等 鼓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 감독은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시절 “승부를 걸정지어라. 우리에겐 킬러가 필요하다 (Kill the game, we want a killer)”라고 다그치며, 선수들의 킬러 본능(killer instinct) 부재를 한탄하고 있다.

이런 고민은 조광래 대표팀 감독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달여 전 출범한 이후 나이지리아, 이란 등과의 평가전에서 윤빛가람(경남 FC), 지동원(전남도래곤즈), 석현준(아약스) 등은 꾀를 잊달아 기용했지만, 맘에 꾹드는 공격수를 아직 찾은 것 같다.

12일 일본과의 평가전에서도 유병수(인천유나이티드), 최성국(광주상무), 김신욱(울산현대) 같은 공격수들을 불러 들여 최후의 테스트를 한다.

조 감독이 이처럼 ‘킬러(Killer)’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22명의 편을 갈라 눈물나게 싸우지만 결국은 킬러의 밭길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이 축구이기 때문이다.

킬러는 ‘죽이는 사람’ ‘살인마’ ‘도살자’ 등의 의미를 지니지만, 축구에선 최후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부를 정지하는 경향을 지나는 경향이다.

스페인은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다비드 비아(바르셀로나), 독일 국가대표팀 킬러 미로슬라프 클로제(바이에른 뮌헨) 등이 현세의 대표적인 골잡이들이다.

이들에겐 특별한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다. 스포츠 심리학 용어로 ‘킬러 본능’이다.

칠자히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골에만 집중하는 ‘냉정함’,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골을 성공시키고 만족하는 ‘유동함’, 나비처럼 날아 벌쳐처럼 죽는 ‘민첩함’ 등이 그것이다.

이런 기질은 축구선수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들도 요즘 같은 극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창조성을 발휘하라는 주문을 끝없이 받고 있다.

이른바 ‘프로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jnews@korea.com

현명한 백신 선택으로 폐렴구균 예방을

하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폐렴은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균성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폐렴구균이다.

폐렴구균은 세균성 폐렴, 급성 중이염뿐 아니라 뇌수막염, 폐렴증, 폐렴증 등이 있다. 최근에는 혈청형(균)의 종류가 있다. 최근 밸브를 높이 아울러 예방접종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혈청형(균)의 종류이다. 최근 밸브를 높이 아울러 예방접종을 보인다. 예방접종이 넓으면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질환의 90% 가까이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혈청형(균)의 종류이다. 최근 밸브를 높이 아울러 예방접종을 보인다. 예방접종이 넓으면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질환의 90% 가까이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아이가 맞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일상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폐렴구균 백신은 총 4회를 접종한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 5세 이전에 1회 보강 접종을 하면 새로 추가된 혈청형에 대한 면역반응이 생겨 보다 폭넓은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아동병원 원장)

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폐렴구균 백신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혈청형(균)의 개수와 예방범위이다. 혈청형이 많을수록 더욱 많은 침습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범위가 넓으면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질환의 90% 가까이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아이가 맞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일상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아이가 맞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일상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혈청형(균)의 종류이다. 최근 밸브를 높이 아울러 예방접종을 보인다. 예방접종이 넓으면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질환의 90% 가까이 예방할 수 있다.

광객 유치는 35위였으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60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5월까지 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발 표한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2009년 782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을 올 연말까지 8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을 밟았다.

세계 관광객은 2020년 중국인 1억 명이 해외 관광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10%만 유치해도 1000만 명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관광시장이 우리 이웃에 있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모셔오는 인바운드 관광여행사 하나 없는 전남의 관광시장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부터라도 준비해 나간다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광인 모두가 힘을 모아 전남 도의 도적(道적)을 한 단계 높이는 관광의 날이 됐으면 한다.

〈전남도 관광개발담당〉

도시에서는 중년층 남성들의 비만과 그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을 많이 걱정한다. 그러나 농촌도 과거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져 육식을 많이 하게 되고